

2018년 7월 2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EU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상승 미-EU,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산업재 관세 인하 등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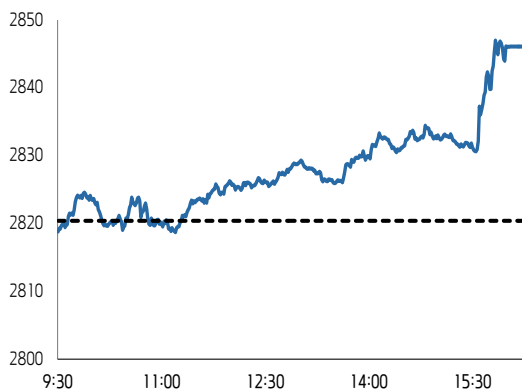
무역분쟁 완화 기대 확산

미 증시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판 이후 하락 출발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때 1.3%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기술주가 이를 주도. 한편, 트럼프-용커 무역분쟁 관련 회담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이 확대(다우 +0.68%, 나스닥 +1.17%, S&P500 +0.91%, 러셀 2000 +0.25%)

GM 과 보잉 등 일부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강세' 여파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트럼프발 무역분쟁이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준 모습.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은 악랄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 할 것이며, 우리의 친절은 끝나간다" 라고 경고. 이러한 트럼프의 트윗 내용이 알려진 이후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 그러나, Doug Jones 등 3 명의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 이 법안 내용은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요구. 상원의원들은 자동차 산업에 700 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는데 관련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 이 소식이 알려지자 무역분쟁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 이번 회담에서 뭔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 용커 의장은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등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 이런 가운데 협상 결과 미국과 EU 는 '무역분쟁을 피할 것' 이라고 발표. 특히 유럽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고, 일부 산업 분야 관세를 인하하는 데 합의 하자 미-EU 간 무역분쟁 완화. 이 결과 미 증시 상승 확대, 신흥국 환율이 강세, 국제금리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73.03	-0.31	홍콩항셱	28,920.90	+0.90
KOSDAQ	748.89	-1.66	영국	7,658.26	-0.66
DOW	25,414.10	+0.68	독일	12,579.33	-0.87
NASDAQ	7,932.24	+1.17	프랑스	5,426.41	-0.14
S&P 500	2,846.07	+0.91	스페인	9,703.10	-0.72
상하이종합	2,903.65	-0.07	그리스	752.78	+0.33
일본	22,614.25	+0.46	이탈리아	21,561.46	-1.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페이스북 시간외 7% 넘게 급락

엑손모빌(+0.70%), 쉘(+0.85%), 코노코필립스(+0.9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했다. UPS(+6.90%)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페덱스(+1.44%) 등 물류 회사들도 동반 상승했다. 알파벳(+1.41%), MS(+2.94%), 아마존(+1.88%) 등 대형 기술주도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했다. 페이스북(+1.32%)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로 7% 넘게 급락 중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1.64%)도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2% 넘게 하락 중이다. 쉘컴(+0.97%)은 NXP와의 M&A가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실적 발표 이후 5% 넘게 급등하고 있다.

GM(-4.63%)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원가부담을 비롯한 무역분쟁 여파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포드(-0.47%)도 동반 하락했다. 보잉(-0.66%)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부진했다. AT&T(-4.51%)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버라이즌(-1.17%) 등 여타 통신업종도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70%	대형 가치주 ETF	+0.47%
에너지섹터 ETF	+0.12%	중형 가치주 ETF	+0.57%
소매업체 ETF	+0.96%	소형 가치주 ETF	-0.17%
금융섹터 ETF	+0.21%	배당주 ETF	+0.30%
기술섹터 ETF	+1.25%	변동성 ETF	-0.43%
소셜 미디어업체 ETF	+3.03%	대형 성장주 ETF	+1.24%
인터넷업체 ETF	+2.14%	중형 성장주 ETF	+1.23%
리츠업체 ETF	+0.99%	소형 성장주 ETF	+0.75%
주택건설업체 ETF	-1.86%	신흥국 고배당 ETF	+1.61%
바이오섹터 ETF	+1.1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2%
헬스케어 ETF	+1.28%	하이일드 ETF	+0.17%
곡물 ETF	+1.44%	물가연동채 ETF	+0.02%
반도체 ETF	+0.50%	Long/short ETF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3.52	+0.90%	+1.45%	+2.24%
소재	370.98	+0.78%	+0.54%	+2.33%
산업재	633.00	+1.33%	+1.03%	+4.68%
경기소비재	895.18	+0.69%	-0.35%	+2.49%
필수소비재	543.77	+0.66%	+0.76%	+2.53%
헬스케어	1,026.43	+1.15%	+1.54%	+5.63%
금융	466.36	+0.26%	+0.65%	+5.14%
IT	1,309.37	+1.50%	+2.28%	+7.03%
통신	144.44	-2.88%	-2.77%	-0.84%
유틸리티	264.96	+0.26%	+0.13%	+1.23%
부동산	201.37	+0.96%	+0.49%	+0.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투자심리 개선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15% MSCI 신흥 지수도 1.6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817 계약에 힘입어 2.15pt 상승한 297.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증시는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감이 지속되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관련 협상 타결 소식은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너럴모터스는 중국에서의 무역장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벽은 없었으며 견조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제너럴모터스의 발표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한편,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주목 된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결과에 따라 KOSDAQ 의 IT 부품 업종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여전히 KOSDAQ 바이오업종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여타 종목들이 반등을 모색한다면 KOSDAQ 또한 투자심리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지표 둔화

미국 6 월 신규주택 판매는 지난달(66 만 6 천건)이나 예상치(66 만 9 천건)를 하회한 63 만 1 천건에 그쳤다.

독일 IFO 기업 체감지수는 지난달(101.8) 보다 둔화된 101.7 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101.6) 보다는 개선 되었다. 현재평가지수가 지난달(105.1) 보다 개선된 105.3 로 발표되었으나, 기대지수는 전월(98.6) 보다 둔화된 98.2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EIA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614.7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가솔린도 232.8만 배럴, 정제유도 10.1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협상을 언급했으나, 이란이 새로운 협상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또한 영향을 줬다. 장 마감 후 미-EU 무역분쟁 협상 타결 소식으로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달러지수는 주택지표 둔화와 미-EU 간의 무역분쟁 협상 타결 소식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미국과 무역분쟁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 했다. 엔화는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강세폭은 제한 되었다. 특히 신흥국 환율이 1% 내외의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택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미-EU 간의 무역분쟁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전환에 성공 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는 달러 약세 및 미-EU 무역분쟁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여타 비철금속은 미-EU 무역분쟁 협상을 앞두고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3% 철근도 0.2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30	+1.14	+2.29	Dollar Index	94.224	-0.41	-0.91
브렌트유	73.93	+0.67	+1.41	EUR/USD	1.1731	+0.38	+0.79
금	1,241.00	+0.52	+0.21	USD/JPY	110.96	-0.22	-1.68
은	15.589	+0.44	+0.10	GBP/USD	1.3191	+0.35	+0.93
알루미늄	2,062.00	-1.08	+1.73	USD/CHF	0.9916	-0.20	-0.74
전기동	6,290.00	-0.08	+2.28	AUD/USD	0.7454	+0.42	+0.76
아연	2,585.00	-1.19	-0.58	USD/CAD	1.3045	-0.84	-0.95
옥수수	373.25	+1.98	+3.39	USD/BRL	3.7006	-1.29	-3.84
밀	542.75	+6.37	+9.76	USD/CNH	6.7577	-0.78	+0.18
대두	875.75	+0.29	+2.10	USD/KRW	1126.30	-0.78	-0.53
커피	111.00	+0.05	+2.64	USD/KRW NDF1M	1117.30	-0.87	-1.1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67	+1.85	+9.79	스페인	1.348	-2.00	+7.20
한국	2.545	-2.50	+1.50	포르투갈	1.726	-4.50	-2.40
일본	0.074	-1.20	+2.90	그리스	3.806	-2.90	-3.20
독일	0.396	-0.10	+5.40	이탈리아	2.675	-0.50	+17.30